

과목명: 대학 글쓰기

학과명: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

이름: 김승준

학번: 202010862

평: 1) 음성적 전달력, 발표 태도 좋음. 2) 전반적으로 교양과목 글쓰기에서 요구하는 요소를 골고루 갖춘 훌륭한 발표문임. 3) 이하 내용은 발표시 코멘트와 동일함.

제목: 길거리 사진가 타츠오 스즈키의 작품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단지 불법 촬영(도촬)의 결과물에 불과한가?

1.서론

우리는 무엇을 예술작품이라 할까? 예술작품을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그림, 건축, 조각, 음악, 뮤지컬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럼 그것들 중 무엇이 예술적이다 라고 표현할까? 그건 그저 자신이 예술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이 예술작품이다 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예술작품이라고 해도 자신이 생각했을 때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술이 아니라고 해도 그의 생각은 존중 받아야 한다. 예술이란 지극히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이 예술이라고 느껴도 그 예술을 하면서 대다수가 불쾌 하거나 민폐를 끼친다면 그것은 예술이라 할 수 없다고 난 생각한다. 만약 내가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 예술이라고 느낀다면 본인에 한정해서 예술이라 할 수 있지만 과연 당하는 사람도 예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 줄까?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그저 민폐를 끼치는 것이다. 즉 내 생각에 예술은 개개인의 해석이지만 그 예술을 보면서 아무것도 못 느낄 수 있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예술을 하면서 작품을 보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개선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타츠오 스즈키의 작품은 길거리의 사람들이 찍히면서 얼굴을 가리고 불쾌한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타츠오 스즈키가 촬영한 것은 과연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그들이 왜 불쾌해 했을까? 타츠오 스즈키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촬영하였다. 분명 그의 직업 길거리 사진을 찍는 street photographer다. 그럼 모든 photographer 들이 비판에 대상이 될까? 아니면 그들은 최소한 불쾌한 느낌을 줄이는 노력이라도 시도했을까? 난 그들은 최소한의 불쾌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길거리 사진의 특성상 길거리에서 사람이나 거리를 찍으면서 찍히기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닐 것이다. 일단 ‘도촬’ 이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말샘에 의하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몰래 사진이나 동영상 따위를 찍다.’ 라고 하는 것이 도촬하다 의 정의이다. 그럼 타츠오 스즈키는 길거리 사람들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찍었으니 위에서 말했듯 도촬이 맞다. 그럼 도촬은 왜 범죄가 되는지 생각해보자. 흔히들 초상권 문제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초상권이라는 법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초상권이라고 생각하는 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헌법이다. 길거리에서 사진 찍힌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그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 이것을 초상권이라는 법을 말한다.

2. 본론

2.1 길거리 사진가들

나는 모든 길거리 사진가가 도촬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몇몇의 방식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부정할 수 없다. 나는 타츠오 스즈키의 결과물은 불법촬영이 맞다고 생각한다. 분명 street photographer 라는 직업은 사진가에서 발전되어 길거리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길거리 사진가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었을까? 나는 그들이 처음에는 사진가가 되어 자신이 찍고 싶은 사진을 찍는 것을 하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찾은 것이 길거리를 찍는 것이 자신이 찍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자신만의 예술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길거리에 사람들을 찍는 것이 예술이라고 느낀 타츠오 스즈키가 자신만에 예술을 펼쳤다고 넘기면 될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전에 먼저 다른 길거리 사진가들을 알아보자. 먼저 초창기의 길거리 사진가들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Eugène Atget(외젠 아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파리의 거리를 재개발하여 바꾸기 전에 옛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길거리의 사진을 찍었다. 그 시기에도 길거리 사진이 있었지만 다른 사진가들과 다르게 그의 목적은 도시의 옛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한 행동을 보고 그를 초창기의 street photographer 라 불린다¹. 그럼 그의 목표가 확실히 있고 타츠오 스즈키 역시 목표가 확실히 있으니 같다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둘을 비교하기에는 길거리 자체를 찍은 것과 길거리 사람을 찍었으니 다르다고 할 수도 있고 시대적인 차이

¹ Britannica, "Street photography", <https://www.britannica.com/art/street-photography>, 2022.11.19

가 있으니 타츠오 스즈키와 마찬가지로 길거리 사람들을 찍은 사진가들을 알아보면 그들은 타츠오 스즈키처럼 비판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진을 찍고 나서 찍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러 가기 때문이다. 그 중 Bruce Gilen 이라 하는 street photographer 가 있다. 그는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플래시를 터트리면서 사진을 찍고 찍었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간단한 얘기를 건네면서 설명하지만 타츠오 스즈키는 몰래 찍고 도망가는 느낌이 강하게 들게 길거리를 촬영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찍었던 것이 불쾌 했어도 말조차 할 수 없다.² 그 와 반대되는 예시로 한국에 길거리 사진가가 있다. 김동현 사진가다. 그는 길에서 촬영하고 싶어 지는 사람이 지나가면 자신을 충분히 소개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허락을 구하고 괜찮다고 해야지 촬영을 한다. 물론 타츠오 스즈키와 Bruce Gilen 처럼 순간적으로 촬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동현 사진작가도 약속되지 않은 길거리 상황에서 찍는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³ 그렇다면 찍혔던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찍혔었던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타츠오 스즈키가 이러한 방식으로 촬영을 했다면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street photographer 초창기에는 타츠오 스즈키 처럼 찍은 뒤 허락을 구하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 타츠오 스즈키처럼 비판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20세기 초반에 유명 street photographer 들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고 초상권이라는 개념이 인식되지 않았다.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대중에게 많이 보급되지 않아 자신이 찍힌 사진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그렇다고 그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으로 요즘은 길거리 사람들을 함부로 찍으면 타츠오 스즈키처럼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타츠오 스즈키는 그저 예술작품을 만든 것일까? 그 대답에 나는 길거리 사진으로 예술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촬 즉 몰래 촬영하고 말도 없이 떠나는 방식이라면 그가 촬영 중 여러 사람 들에게 불쾌감을 끼쳤으니 정상적인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² Youtube, "WNYC street shot: Bruce gilén", <https://www.youtube.com/watch?v=kkIWW6vwrVM>, 2022.11.19

³ Brunch, "어르신들을 수천 번 길거리 캐스팅한 사진가", <https://brunch.co.kr/@tumblrbug/195>, 2022.11.19

2.2 초상권 문제

물론 타츠오 스즈키가 도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가 그저 예술의 한 장르를 했을 뿐 도촬이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초상권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러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초상권’이라고 부르는 법은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한국의 초상권과는 다르다.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이라는 것을 초상권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럼 ‘퍼블리시티권’이 ‘초상권’과 무엇이 다를까? ‘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⁴ 예를 들어보면 한국에서는 예능이나 길거리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출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 얼굴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외국은 다르게 길거리 사람들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는 범죄자의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초상권 대신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재산상의 이유나 사생활 침해 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딱히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촬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사생활 침해는 길거리 사람을 찍은 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길을 다니는 것만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을 찍거나 자동차안에 있는 사람을 찍거나 즉 개인적인 공간에 있는 것을 찍는 건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나라의 가치관이 조금 다르기에 그럴 수 있지만 타츠오 스즈키는 분명 길거리에서 사진 찍히는 것을 좋지 않게 느끼는 사람들을 작품으로 만들었고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 불쾌하다는 표현을 했고 찍지 말라고 했다.⁵ 그럼에도 그는 찍으면서 상관없다는 느낌으로 촬영을 이어간다. 그렇다면 범죄가 아니라고 해도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과연 남을 불쾌하게 한 것이 예술작품인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슨 문제냐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정당한 일이라 할 수 있을까? 물론 법적으로 합당하다면 처벌을 할 수 없고 그는 죄가 없다. 죄는 없어도 그

⁴ “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그 차이점과 내용은”, 디지털타임스, 2018.02.09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20902109923809030,

⁵ Youtube, “ON THE STREET WITH [002] : Tatsuo Suzuki”,

https://www.youtube.com/watch?v=707nMSGq_R8, 2022.11.19

의 행동은 분명 찍힌 사람도 보는 사람에 따라 불쾌감을 주었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렇
기의 타츠오 스즈키의 행동이 도촬이 아니라 하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내 생
각에는 법과 도덕의 우선순위가 다르기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법을 중요 시
하는 사람들은 법적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 하고 도덕적을 중요 시 한다면 타츠오 스즈키
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불쾌하게 했다
는 점으로 그의 행동을 비판했을 것이라고 난 생각한다.

결론

결론적으로 타츠오 스즈키의 행동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고 촬영한 길거리 사진들은 도
촬이 맞다. 그의 사진들이 예술작품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촬영을 하면서
불쾌감을 느꼈던 사람들은 분명 예술작품이라고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예술작품이
라는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달라야 하는 감상을 찍혔었던 사람들은 전부 예술이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럼 예술작품이라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라 생각한다. 물론 시대적인 문
제로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자신만 이런 취급을 하냐고 할 수 있지만 다른
street photographer들은 시대에 맞춰 과거와는 다르게 개선을 해왔고 노력해왔다. 그런
street photographer 들과 다르게 시대에 맞지 않은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비판
에 여지는 충분하고 다른 street photographer들의 방식을 참고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바뀌 나간다면 비판을 줄어든 것이라고 난 생각한다. 초상권이라는 개념이 다르기에 법
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그의 방식에 찍혔던 사람과 그것을 보는 사람들 중 몇몇은 불쾌감
을 느꼈으니 그의 사진은 예술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Britannica, "Street photography", <https://www.britannica.com/art/street-photography>, 2022.11.19

Youtube, "WNYC street shot: Bruce gilen", <https://www.youtube.com/watch?v=kklWW6vwrwM>,
2022.11.19

Brunch, "어르신들을 수천 번 길거리 캐스팅한 사진가", <https://brunch.co.kr/@tumblrbug/195>,
2022.11.19

"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그 차이점과 내용은", 디지털타임스, 2018.02.09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20902109923809030,

Youtube, "ON THE STREET WITH [002] : Tatsuo Suzuki",
https://www.youtube.com/watch?v=707nMSGq_R8, 2022.11.19